

3. 世界化에 따른 現地 協力業體의 管理

- (背景) 世界化를 추진하는 기업은 각국의 文化的 差異 克服과 企業 活動의 效率性 增大를 위하여 協力業體의 現地化 必要性 增大
- (焦點) 現地 協力業體의 構造的인 系列化와 相互 利益的인 關係 形成을 통하여 협력업체 管理의 效率性 增大를 도모
- (示唆點) 現地 協力業體에 대한 管理 效率化로 競爭力 增大 및 현지 政府와 關係 改善의 잇점이 있음

- (背景) 企業 活動의 競爭力 提高와 各국 政府의 地域 發展 要求에 따라 協力業體의 現地化 必要性 增大
 - 각국의 문화적 차이와 생산·판매의 비효율성으로 인하여 기업이 모든 활동(제품의 설계, 생산, 판매)을 단독적으로 수행하는 것은 비효율적임
 - 또한 현지 정부는 자국의 지역 발전, 고용의 증대, 그리고 기술력의 확보를 위하여 해외 기업이 제품을 단순히 수입 판매 또는 조립하기보다는 실질적으로 자국 산업 발전에 기여하기를 원함
 - 따라서 세계화를 추진하는 기업의 성공 여부는 제품의 실질적인 생산과 판매를 담당하는 현지 협력업체를 어떻게 관리하느냐에 달려 있음
- (焦點) 現地 協力業體의 管理 方向 : 현지 협력업체에 대한 構造的인 系列化 推進 및 相互 利益的인 關係 形成 도모
 - 협력업체에 대한 구조적인 계열화 추진의 필요성
 - 현지 협력업체를 관리하려면, 협력업체에 대한 정보 파악 비용, 감시 비용 그리고 계약 불이행에 따른 소송 비용 등과 같은 관리 비용이 발생함
 - 그리고 협력업체는 타기업이 보다 좋은 거래 조건을 제시할 경우 기존의 계약을 파기하는 기회주의적 성향을 보이기도 함
 - 따라서 해외 시장에서 협력업체에 대한 관리 비용 및 기회주의적 행동을 최소화시키기 위해서는 현지 업체에 대한 구조적인 계열화 필요
 - 협력업체에 대한 구조적인 계열화 추진 방안
 - 현지 협력업체에 대한 적극적인 기술 이전과 자본 투자로 자사와 협력업체 간 계열화 추진
 - 현지 협력업체와 공식·비공식적인 커뮤니케이션 채널을 구축하여 이러한 구조적인 계열화가 상호 도움을 주는 것을 인식시키는 작업이 중요
- (示唆點) 構造的 系列化에 따른 世界化 推進 企業의 잇점
 - 장기적으로 현지 협력업체의 개발 육성 및 효율적인 협력업체의 관리를 가능하게 하여 기업 경쟁력을 증대시킴
 - 현지 협력업체의 활성화는 지역별 문화, 사회 규범의 차이(gap)를 최소화시키면서 현지국의 산업을 발전시킴으로써 현지 정부와의 관계를 개선시킴

(김 정 윤)

< 用語 解説 >

○ 實質 實效 換率(real effective exchange rate)

變動換率制度(1973년)의 채택으로 基軸 通貨가 여타 통화에 대해 수시로 변동됨에 따라 특정 기축 통화를 척도로 하는 환율은 가치 척도로서의 역할을 담당할 수 없게 되었다. 이러한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실효 환율 개념을 도입하였는데, 이는 자국 통화와 모든 교역 상대국 통화간의 개별적인 환율 변동을 가중 평균하여 산출한다. 즉 實效 換率은 자국 통화와 교역 상대국 통화와의 종합적인 관계를 나타내는 환율로서 지수로 표시한다. 이때 加重值로는 자국과 상대국간의 교역 또는 자국의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사용된다. 이를 수식으로 표시하면 다음과 같다. $Re = \sum W_i R_i$ (Re는 실효 환율, W_i 는 i 국과의 가중치, R_i 는 i 국 통화와의 환율 지수)

실효 환율은 實質 實效 換率을 많이 사용하는데, 이는 각국에서의 인플레이션에 따르는 실효 환율의 다양한 변동으로 구매력을 정확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명목 실효 환율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서이다. 실질 실효 환율은 특정 기준 시점을 100으로 하여, 100이면 양국 통화간의 구매력이 동일하다는 것을 의미하며, 100 이상이면 자국 통화가 교역 상대국 통화에 대한 상대적 구매력이 감소하였음을 의미한다.

○ KEDO(Korea Energy Development Organization, 한반도 에너지 개발기구)

對北 경수로 및 기타 대체에너지 지원을 위해 지난 3월 9일 공식 발족한 국제정부기구로서, 韓·美·日 3개 회원국을 중심으로 그 밖의 20여개국이 참여하고 있다. 대북 경수로 지원에서 이 기구의 역할은 먼저 북한과 경수로 공급협정을 체결하는 것이다. 설립 협정에 1천 MW급 한국 표준형 경수로 2기를 공급할 것을 명시하고 있으나 북한의 반발로 한국형 공급이 아직 불투명한 상태이다.